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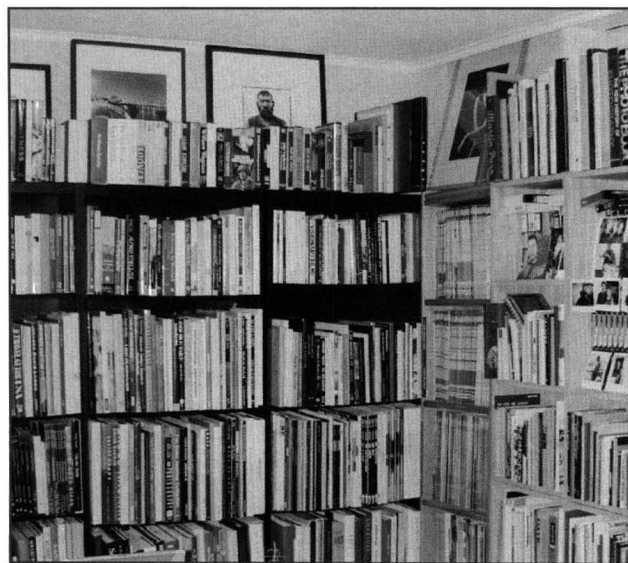
사진평론가는 눈과 손과 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대개 하루 300여 점의 사진을 보고, 많을 때는 1,000여 점의 사진을 보기까지 한다. 그리고 사진을 본 후 사진 이미지에 대한 글을 거의 매일 주기적으로 적게는 10매, 많게는 40매 안팎으로 쓴다. 뿐만 아니라 사진예술의 미학과 예술성을 위하여 미술관과 화랑에서 보내는 시간도 족히 일주일에 서너 시간 걸린다. 따라서 사진평론가의 작업실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비한 여러 준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사진평론가는 미술평론가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떤 면에선 다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접하는 이미지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 사진과 회화의 제작기간에 차이가 있듯이 이들 사이에는 현격한 이미지의 양적인 차이가,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환경들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술평론가가 한 점의 회화를 통해서 회화의 예술세계와 미적가치를 가려낸다면 사진평론가는 적어도 15~20매의 사진을 통해서 사진작가의 예술세계와 미적 가치를 가려낸다. 이처럼 사진평론가는 미술평론가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이미지와 마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 회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진평론가의 작업실은 방안 가득 사진 작품으로 채워지거나 이미지의 세계가 더 강화되어 펼쳐진 경우가 많다.

자연. 반. 인공. 반, 나의. 글.

변화시킨. 작업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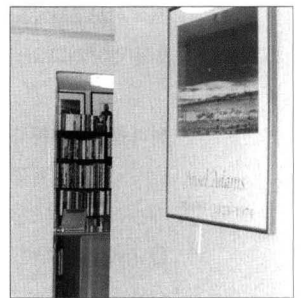
사진평론가의 작업실은 또한 문학평론가의 작업실과도 다른 면이 있다. 서재로까지 볼릴 수는 없지만 벽면을 메운 책들은 상당수 이미지와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크기와 무게가 다르고, 책을 꺼냈을 때도 형상과 시선이 먼저 달려 나와 내게 인사를 한다. 그래서 사진평론가의 작업실은 문학평론가의 작업실 혹은 서재와는 다르게 시각적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선사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세계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훑다할 수 있는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때문에 사진평론가의 사유체계는 상상력보다는 사진을 통하거나,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서 구축되는 경우가 많고, 글쓰기의 경우도 사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진으로 끝이 나는 조금은 색다른 글쓰기의 행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진평론가의 작업실은 넘쳐나는 이미지 때문에 질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들끼리 부딪혀 소란스럽고, 감춰짐이 아니라 곧장 드러나기 때문에 걸만 화려할 수 있다. 또한 비밀스러움이 없는 싱거울 수 있고, 이 소란스러움과 싱거움 속으로 들어올 때, 가령 인터넷과 같은 소란스러움이 날아들면 피곤함과 짜증을 유발하기 쉽상이다.

작업실을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남양주 덕소로 옮긴 것은 상당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벌써 4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이곳의 평온함과 적막감이 오히려 섬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사진 특유의 메커니즘적 특성상, 그리고 사진이 소통되고 소비되는 구조상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워낙 도시적이고 물질적이어서 도시와 물질에 순응하며 그것들과 함께 지낸 사진들이, 사진책들이 갑작스런 정적에 낯설어하고 움츠러드는 게 보였다. 그런데다가 밥 먹듯이 사용한 인터넷을 끊고, 방안을 어지럽힌 사진들을 숨이내고, 제멋대로 나뒹굴었던 책들을 정렬시키자 억지스러움과 억압 구조에 더욱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흐르고 아



파트 단지에 꽃들과 새들이 찾아오고, 작디작은 베란다 너머로 제법 자란 나무들과 무성해진 풀들이 자태를 보이자 적막함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벌써 네 차례나 아파트 단지를 철쭉으로 물들인 봄 풍경이 왔고, 또 그만큼의 시간 속에서 단지를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인 가을 풍경도 왔다가 갔다.

4평 남짓한 작업실도 변화를 겪었다. 속이 감춰진 소설책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오랜 손길을 땀던 책들보다 처음 대하는 책에 눈길이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균형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소통의 본질이 4평 정도의 작업실에서 발견되었다. 자연과 고요가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대체할 수도 없었다. 낮과 밤의 적절한 교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듯이, 인공과 자연의 교류,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낮밤을 바꿔가며 오고 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인터넷을 설치하고, 위성수신기를 달고, 사진을 꺼내놓고, 사진집을 줄지어 세웠다. 그리고 꼭 그만큼의 자연의 책과 이미지들도 작업실에 채워 넣었다.



인공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 자연 이미지와 인공 이미지가 서로 절반씩 차지하는 작업실 풍경에서 나는 비로소 삶의 긴장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지난 4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눈, 손, 입이 만들어냈던 것이 많다. 그 중에서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진이야기》《사진과 역사적 기억》《시간의 풍경》이 새로운 작업실에서 나왔다. 이전에 도시에서 썼던 《현대사진가론》《사진의 메카를 찾아서》《현대사진의 쟁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글쓰기였다. 어느 정도 나이 먹음에도 이유가 있지만 변화된 작업실 환경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사진가의 작업실은 도시를 떠나기 어렵다. 도시를 떠났던 작업실도 다시 돌아온다. 사진평론가의 작업실도 다를 바 없다. 언젠가는 다시 도시로 향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나마 자연과 인공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 조금 전에 끝을 낸 《문학이 본 사진》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영화 속의 사진 이야기》가 각기 절반씩의 향기와 풍경을 담았으면 좋겠다. **작가**

진동선 · 사진평론가

이 글을 쓴 진동선은 사진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이다. 위스콘신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사와 순수사진을 전공했으며, 뉴욕주립대 예술대학원에서 사진비평을 전공했다. 계간 '사진비평' 수석편집위원, '2000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 하우아트 갤러리 디렉터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현대사진가론》《사진의 메카를 찾아서》《현대사진의 쟁점》 등이 있다.